

■ 99년 업종별 경기전망

[ 1999년 업종별 경기전망 ]

- 내수 경기 호전 아직은 시기 상조 세계경제 전망 불투명 어려움 계속 될 듯

기 간	실질GDP 성장률(%)	
	98년	99년
산업연구원	-6.6	2.1
대우경제연	-7.1	-1.7
삼성경제연	-6.4	-1.8-2.2
LG경제연	-6.0	1.9
현대경제연	-6.0	0.3
한국금융	-6.6	-2.8
KID	-6.4-6.6	-1.5-2.1
예리런치	-7.0	2.9
WEFA	-4.8	0.6
DFI	-6.7	1.0

1999년 국내 경기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제의 불투명으로 낙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불투명하다. 경제관련 지표가 새해 들어서 밝아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와 IMF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우리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대예측 1999년 산업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여 98년 실적과 99년 전망을 진단

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경제성장률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우리경제의 관건인 수출은 98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다소 회복되나 수출은 가격경쟁력 약화와 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중 99년 업종별 경기전망을 일부 요약하여 소개한다.

1. 섬유 : 자금조달 애로 극복이 과제

조상호 (섬유산업연합회 부장)

현재 섬유산업의 구조는 선진국형인 정보 및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해나가고 있는 구조조정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점으로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장 큰 문제이다.

99년도 섬유산업의 각 부문별 전망을 해보면 수출부문에서는 합섬직물류의 대중국, 홍콩수출이 여전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남미지역의 수입규제, 중동 및 동남아시아의 수요감소 등으로 수출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시아의 저가수출로 인한 수출감소 및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그리고 의류의 경우도 주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 하락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일본은 엔화강세로 금년보다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금년도처럼 재고처리를 위한 덤핑수출은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가격파괴 수출은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섬유수출은 98년대비 1.7%가 감소한 170억불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섬유수입은 내수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의류 등 내수 소비재의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원료 및 직물류 등 원자재부문의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98년대비 4.4%가 증가한 36억 5,000만불 정도로 전망된다.

내수부문은 IMF의 영향으로 실업증가, 가계소득의 감소 등으로 피복비 지출이 크게 감소되어 의류구매력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신상품에 대한 상품기획도 시즌 임박한 기획 및 반응생산체제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98년과 마찬가지로 생산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류시장 규모도 98년대비 9.9% 정도 감소한 11조 8,000억원 정도로 전망한다.

그리고 원자재부문은 화섬 기초원료, 원면, 원모 등의 국제가격은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섬유산업의 신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부 시설 중심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은 세계 4위의 섬유수출, 시설규모도 세계 7위 수준이며 국내산업상의 위치에서도 수출 13%, 고용 15.1%, 생산액 8.2%, 연간 124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중요한 산업이다.

현재 섬유산업의 구조는 선진국형인 정보 및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해나가고 있는 구조조정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점으로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섬유산업의 지원책으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 분야에 5년간 6,8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섬유개발비중을 확산해 나가는 추세이다.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5% 수준이며, 패션디자인의 개발수준도 선진국의 80% 수준으로서 비가격경쟁이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 ▼ 섬유류 수급현황 및 전망

구분		1997	1998 추정	1999(F)
공급	생산	2,828(21.0)	2,754 (-2.6)	2,840(3.1)
	수입	878(3.7)	669(-23.8)	669(0.0)
계		3,706(12.4)	3,424 (-7.6)	3,509(2.5)
수요	내수	2,145(2.9)	1,840(-14.2)	1,845(0.3)
	수출	1,561(33.9)	1,584 (1.5)	1,664(5.1)

주 : 사류(화섬사, 면사, 모사)기준 수출은 직수출 기준

## 2. 건 설 : 건설경기 회복 낙관은 금물

박진원(대한건설협회 실장)

SOC 투자는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의 완공을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했기 때문에 SOC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느끼는 일감부족 현상은 심화되어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된다.

99년 건설공사 계약규모는 98년 대비 3.1% 늘어난 51조원으로 예측되어 98년도의 극심한 건설경기위축이 한풀 꺾이는 추세가 예상된다.

민간부문계약액은 19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14.6%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는 98년의 큰 폭 감소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99년 민간건설시장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제반환경은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합주택활성화기대,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기대, 유동성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시 주택수요유발효과기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 등이다.

반면에 부정적 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황지속여부, 건설업체 경영상태의 악화, 경기부양책 효과 미지수가 관건이다.

공공부문계약액은 31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2.8%의 감소가 예상된다. 공공건축의 경우 올해에는 주로 비주거용인 학교, 관공서 등이 발주되었으나 주거용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아파트발주연기로 3만 5,000여세대의 저조한 공급실적이 예상되고 99년에는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에는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주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9년 정부예산에 지난 91년부터 중단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내년부터 재개하여 2002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키위해 내년도 예산에 1,800억원을 배정하였고 99년으로 발주가 연기된 광주 운남, 화성 발안, 강릉 교동, 함안 모항, 부산 기장 등의 공사발주와 최근 주택공사의 공동주택은 부도위험이 없어 입주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물량확대가 기대된다.

공공토목의 경우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SOC사업과 고용효과가 큰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들 공사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9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따른 세수부족으로 지자체발주 환경관련 시설공사의 축소가

예상되며, 특히 SOC투자는 신규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경부고속철도, 인천 신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의 완공을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했기 때문에 SOC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느끼는 일감부족 현상은 심화되어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된다.

다.

정부예산편성안을 보면 99년 예산은 98년보다 6.2% 늘어난 85조 7,900억원 규모로 편성했고 SOC부문은 98년보다 5% 늘어난 12조 70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96년 23%, 97년 24.3%, 98년 13.6%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며, 사업성격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위주로 예산을 집중배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신규 건설물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99년 건설계약액 전망

구분	98(잠정)		98(추계)		99(전망)	
	계약액	증감율	계약액	증감율	계약액	증감율
합계	797,146	16.0	494,600	-57.9	510,000	3.1
공공	354,133	31.6	327,240	-7.6	318,000	-2.0
민간	443,013	6.0	167,360	-62.2	192,000	14.6
포목	337,331	47.9	299,300	-14.5	294,650	2.3
건축	460,085	0.2	206,500	-55.1	215,150	4.2
기상익	782,455	8.4	597,300	-23.7	630,000	5.5

3. 철강 : 채산성 악화와 통상마찰 우려

김상규(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미국·유럽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동남아국가에서도 철강관련 통상마찰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하반기 들어 산업생산활동 위축 추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99년 경제성장률이 2.4%로 전망됨에 따라 99년 강재내수는 98년대비 8.5% 증가한 2,685만톤으로 전망된다.

제품별로는 98년도 감소폭이 가장 큰 냉연강판이 12%로 증가폭이 가장 크지만 97년 내수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인 141만톤 정도이다.

민간건축부문의 위축으로 건설경기 회복이 제조업 생산활동 회복에 비하여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강류 내수는 판재류 내수 증가율 10.7%보다 증가폭이 작아 6.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량 건설업에 투입되는 철근과 형강은 98년에 -38.5%와 -55.6%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99년에는 각각 6.7%, 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9년에는 모든 제품이 98년대비 7~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98년의 감소폭이

커서 97년 수준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상반기 71%의 획기적인 신장률을 기록하였던 강재수출은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98년 연간으로 전년비 56%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고회환율을 배경으로 한 업계의 다각적인 수출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엔화절상으로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료가격 하락이 원화 절상 폭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어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미국·유럽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동남아국가에서도 철강관련 통상마찰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증대 및 국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수출대상물량이 축소되어 99년 철강수출은 금년대비 11.9% 감소한 1,425만톤으로 전망된다.

제품별로 보면 전통적인 수출품목이 아닌 조강류가 연간 28.1% 감소하고 판재류는 7.5%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99년중 철근수출은 98년대비 39.2% 감소하고 형강수출은 17.6% 감소할 전망이며, 98년에 91.7%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후판의 99년 수출은 98년대비 1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수입은 99년 강재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강재내수가 소폭 회복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국내 생산능력이 과잉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98년 10월 이후 강세로 전환된 일본 엔화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력 수입품의 국내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품별로는 생산능력이 증대된 후판의 수입이 3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판재류 전체가 21.3% 감소하고, 조강류가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철강 수요산업 활동 전망

			98				99	
			14	24	34	44		
건	건설투자	천억원	112.4(-7.7)	129.7(-13.2)	128.2(-17.7)	130.0(-19.9)	508.3(-15.2)	524.0(3.1)
즈	수주량	만Gt	92(-44.9)	362(0.3)	229(-33.6)	317(-21.7)	1,000(-21.6)	600(-20.0)
자 동	생산	천대	435(-31.3)	498(-38.1)	436(-35.4)	668(-7.6)	2,027(-28.1)	2,119(4.6)
가	생산	십억원	3,034(18.0)	2,664(-5.7)	2,237(-4.6)	2,452(-7.1)	10,626(3.1)	9,389(-11.7)
일 반기 계	생산지수	95=100	78.3(-24.9)	69.3(-36.2)	65.6(-37.5)	67.5(-30.5)	70.3(-32.4)	72.3(2.9)

주 : 98년 하반기 이후는 전망치, 자료 : 통계청, 각협회, POSRI

#### 4. 조 선 : 향후 해운시장 불투명 수주 감소

최연호(조선공업협회 이사)

최근에 한국의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생산성 향상, 코스트 절감 등에 의한 질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화 및 엔화의 환율에 의해 국제경쟁력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아시아지역의 경제불안과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전망 및 향후의 선박수급 불균형에 대한 선주들의 우려로 세계 발주량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99년에도 금융경색으로 내수선의 발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주량은 감소가 전망되나 경쟁력 면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비해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조량은 현재 사상 최대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고 있는 등 설비 및 인력의 풀가동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98년대비 15%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99년의 신조선 수출은 내수선의 건조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98년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주는 98년에 대일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연초에 우려했던 이상의 수주량을 확보하였으나 99년의 수주전망은 98년에 비해서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의 원화 및 엔화의 환율이 유지되어 대일경쟁력 우위가 유지된다 해도 98년에 발주된 상당량의 선박이 저선가를 겨냥한 조기 발주의 성격이 짙고,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향후 해운시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선주들이 쉽게 발주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계 발주량은 금년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99년에도 여전히 국내 해운사들의 자금여력 부족과 금융경색으로 신조선 발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년 연속 1,000만GT를 상회했던 수주량이 99년에는 1,000만GT 미만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조량은 98년대비 15.9% 증가한 950만GT 정도가 전망되며, 특히 금액면에서는 척당 2억 2,000만불에 달하는 8척의 LNG선이 포함되어 있어 증가율은 30.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조선 수출은 내수선인 LNG선을 제외하면 98년대비 24% 증가한 72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한국의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생산성 향상, 코스트 절감 등에 의한 질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화 및 엔화의 환율에 의해 국제경쟁력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조선사업은 수주산업으로 계약에서 인도될 때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통상 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선주측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입금시점의 환율은 그 선박의 건조코스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선박의 채산성은 건조기간의 평균 환율에 의해 좌우되며, 경쟁력이 높은 시점에 수주한 선박이라 해서 큰 이익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약 2년이라는 건조기간 동안에 환율의 변동 등 코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선박 영업의 경우 미래에 대한 상황 예측을 정확히 하면서 보다 보수적일 필요도 있는 것이다.

▼ 조선부문 건조실적

구분	97.1~10	98.1~10	증감율	97실적	99추정	증감율	99경향	증감율
작	129	124	-	172	-	-	-	-
천GT	5,762	6,235	8.2	7,449	8,200	10.1	9,500	15.9
백만\$	5,175	5,366	3.7	6,944	6,900	-0.6	9,000	30.4
	(4,207)	(4,525)	(7.6)	(5,767)	(5,972)	(3.6)	(7,200)	(20.6)

주 : ( )내는 신조선 수출실적임

5. 신 발 : 수출 감소, 내수는 소폭 성장

이민호(국제상사 부장)

99년에는 자연스런 반등현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장이 밝아보인다기 보다 개별 기업단위로 약간씩 목표를 늘려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은 98년에 구두, 케주얼 중심으로 두 자리수의 감소폭을 보인 만큼 99년에는 자연스런 반등현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장이 밝아보인다기 보다 개별 기업단위로 약간씩 목표를 늘려잡고 있다.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바이어인 나이키의 판매부진에 따라 한국에 대한 주문이 감소하며 시장의 전반적인 소비추세가 기존의 운동화 중심에서 케주얼로 옮겨짐에 따라 수출역시 금액 기준으로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고가기능화 등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고 향후 오더 수주시 축소된 생산 능력 중심으로 수주가 예상되어 지나친 가격경쟁이 줄 것으로 생각되어 수량기준 감소폭은 줄 것으로 예상된다.

99년의 수출시장은 주력 바이어인 나이키의 판매부진이 예상되고 리복, 아디다스 등 기타

대형 브랜드의 경우 이미 한국을 떠나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구매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시장 수요 자체도 운동화 중심에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케주얼 쪽으로 이동이 예상되어 14% 정도의 감소가 전망된다.

수출내용에서는 혁제운동화 및 일반혁화의 감소가 수출감소를 주도할 것이며, 특수기능화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줄어 수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 경기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관세의 인상과 환율이 98년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시장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던 해외 대형 브랜드 역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시장대응 기간을 단축하여 국내수요에 대하여는 국내생산으로 98년중 이미 일부분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전환이 예상되어 수입규모는 축소가 예상된다.

수입내용에서는 완제품의 수입감소폭이 큰 반면 반제품 수입이라든지 외저, 주요 부품 등의 수요는 특수 기능화 및 수출 증가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시장은 증가브랜드 시장 및 저가의 기타 시장은 98년대비 동일한 시장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급격한 시장 감소를 보인 고가브랜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회복이 되어 내수 시장 전체 규모는 200억원 정도 늘어난 8,200억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 신발부문 수급전망

구 분		1996	1999	전년대비증감율
공 급	생 산	160	161	+0.6
	수 입	10	7	-30.0
계		170	168	-1.2
수 요	내 수	110	115	+4.5
	수 출	60	53	-11.7
계		170	168	-1.2

6. 일반기계 : 수출 주력업종 중심 소폭 회복

박광순(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99년의 기계류 설비투자는 침체된 내수시장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설비투자가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이 기대된다

일반기계부문의 99년도 경기전망은 생산, 수출 및 내수 등 여러측면에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기업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국내총고정투자 가운데 설비부문의 증가율이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증가율은 전년대비 2.8% 늘어난 28조 4,200억원이 예상된다.

경기의 개선조짐에도 불구하고 생산증가율이 3%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국내 수주 가운데 상당부분이 현재 약 20조원으로 추정되는 중고 유희설비로 총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기계 가운데 주요 유희설비로는 금속공장기계, 섬유기계, 운반하역기계, 건설중장비 및 인쇄·제본기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세부품목의 경우 성능이 양호한 중고설비가 신기계 수주와 병행하여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98년대비 3.8% 증가한 89억 5,500만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출주력시장인 아시아시장의 구조조정 진전 등에 따른 점진적 회복기대와 일본 정부 당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유로화의 성공적 출범과 EU지역의 수출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에 따라 달러대비 원화 환율이 98년보다 7% 이상 절상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와 경쟁관계인 일본의 엔화가 달러대비 10% 정도 절상된 117엔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환율변화에 따른 수출감소요인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은 99년도 일반기계 수입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98년대비 7.6%가 증가한 82억 3,000만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조업무문의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수입수요가 많은 일반기계부문의 설비투자 경우 증가율이 많게는 2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면해제와 이에따른 일본제품의 적극적인 국내시장 공략도 수입증가의 주요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9년의 기계류 설비투자는 침체된 내수시장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설비투자가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소폭 회복이 기대된다.

#### ▼ 일반기계산업 수급전망

구 분	1996	1997	1998(A)	1999(B)	단%
생 산	34551	35405	27645	26420	2.8
수 출 (세계시장점유율)	9112 (1.0)	9062 (1.0)	8627 (1.0)	8955 (1.9)	3.8
수 입	22362	16250	7649	8250	7.6
각 동 료	81.1	78.7	62.5	70.0	

주 : 생산은 십억원, 수출입은 백만달러임.

## 7. 반도체 : 시장 상황 호전 20%이상 성장

서장원(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반도체산업 조사기관들은 세계 DRAM 시장이 99년중 25~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DRAM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반도체시장은 99년부터 향후 수년간 20~30%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99년에는 세계 DRAM 시장의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든 데 힘입어 지난 3년간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다시 고속성장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부분의 반도체산업 조사기관들은 세계 DRAM 시장이 99년중 25~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DRAM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반도체시장은 99년부터 향후 수년간 20~30%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은 일관공정부문의 호조에 따라 98년대비 20% 증가한 19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고속 및 초고속 DRAM의 급속한 수요증가와 국내 반도체회사들의 순조로운 양산에 힘입어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수출은 고속 및 초고속 DRAM의 호조에 따라 98년대비 20% 증가한 168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첨단제품인 고속 및 초고속 DRAM의 호조에 따라 북미 및 일본지역의 대형고객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반도체회사들이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고속 및 초고속 DRAM 분야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세계 DRAM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회사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3%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전망은 99년에 세계 PC 시장이 물량기준으로 98년대비 18~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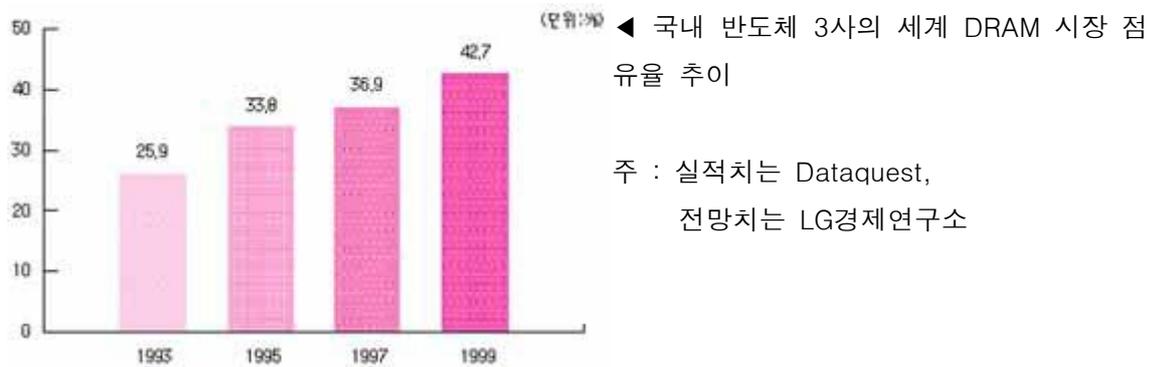
세계 PC 시장이 99년에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2000년을 앞두고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기업들이 PC의 대체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인터넷에 3D 그래픽 정보의 처리기능이 새롭게 보강되고 오피스 2000 등과 같이 고성능의 시스템 사양을 요구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이외에도 DRAM을 상당물량 수요하는 새로운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99년 반도체시장의 전망을 밝게 한다.

98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핸드헬드 PC의 경우 윈도우 CE의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1대당 24~32메가바이트에 달하는 DRAM을 메모리로 사용하고, 디지털 TV 역시 1대당 12메가바이트의 DRAM을 사용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아날로그 반도체 역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DRAM 시장의 수급관계를 종합해볼 때 99년 이후에도 DRAM의 공급부족 내지 수급균형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반도체회사들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 8. 자동차 : 내수대비 수출 우위 당분간 지속

남명현(현대자동차 자동차산업연구소 차장)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수·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차 등 일부 차급의 공급 여력은 늘어날 전망이다

99년 국내 자동차 공급 능력은 IMF 관리체제 이후 인력 감축과 차종별 생산라인 조정, 투자 축소, 공장 가동 시간 감축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수·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차 등 일부 차급의 공급 여력은 늘어날 전망이다.

내수판매는 높은 실업률의 지속, 임금 삭감과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 등 수요 감소 요인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과 다양한 신모델 출시, 복수 보유 중과세 철폐,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폐지 등 수요 진작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98년대비 15.7% 증가한 85만 3,000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차종별로 승용차는 금년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급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년보다 15.4% 증가한 61만 6,00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수출은 세계적인 공급과잉, 전반적인 세계 경제 침체, 미국 및 EU와의 무역마찰 증대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지속에 따른 수출 확대 노력, 점진적인 국가 신인도 제고, 기아 사태의 정상화, 환율상의 대외 가격 경쟁력 유지 등으로 98년대비 3% 증가한 139만대를 기록함으로써 98년에 이어 내수대비 수출 비중의 우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작년대비 4.9% 증가한 121만 3,000대, 상용차는 14.9% 감소한 13만 7,000대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시장 서유럽이 경차 신모델 수출 급증으로 98년대비 25.5% 증가한 45만 5,000대, 동유럽이 1.5% 증가한 19만대, 태평양은 7.9% 증가한 12만 6,000대, 아프리카는 40.1% 증가한 7만 4,000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은 수출의 증대와 내수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98년대비 12.5% 증가한 225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의 경우 신모델 출시, 기아의 경영 정상화 등에 힘입어 98년대비 11.6% 증가한 187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상용차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98년보다 16.9% 증가한 38만대로 예상된다.

수입은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부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99년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해제로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98년대비 100% 증가한 6,000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자동차 생산/판매 추이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생 산	2,050(18.5)	2,312(12.8)	2,526(9.3)	2,813(11.4)	2,818(0.2)	2,000(-29.0)	2,250(12.5)
만 매	2,075(20.3)	2,294(10.6)	2,535(10.5)	2,854(14.2)	2,830(-0.8)	2,087(-26.3)	2,243(7.5)
내 수	1,438(13.2)	1,558(8.4)	1,556(0)	1,644(5.7)	1,513(-8.0)	737(-51.5)	853(15.7)
수 출	639(40.1)	738(125.5)	979(32.7)	1,210(23.6)	1,317(8.8)	1,350(2.5)	1,390(3.0)
금 액	4,095	5,153	7,697	9,457	9,764	8,400	10,000
KD 수출	64	46(-28.2)	105(128.3)	202(93.3)	195(-4.4)	213(10.3)	338(58.7)

주 : 1. 수출은 KD(Knok Down)